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남원 곳곳의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도서관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춘향골교육공동체는 지난 2019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 수행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과정에 협업하면서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하는 진로탐색 과정입니다.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세워주는 강연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는 사람책을 통해 진로와 직업, 일의 의미를 뒤집어 보는 ‘상상학교’, 일·노동·직업·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와 분야를 탐색하는 ‘내일생각워크숍’, 탐색한 것들을 기반으로 진로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3년동안 연속해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순창, 완주, 장수, 전주, 진안 5개 지역에서 지역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고, 2019년부터 춘향골교육공동체에서 남원의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원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 만나 관계형성 및 나에 대해 알아가기를 주제로 내일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내일생각워크숍을 통해 지역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찾아가는 사람책’을 진행한 후 진로멘토를 정해 그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실행하는 내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슴 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19년부터 청소년 진로탐색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및 지역자원 조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특히 청년들을 만나 그들 저마다의 일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지역자원자료집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은 아직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으나 이번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원, 특히 사람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려 합니다. 청소년들이 일과 삶에 대해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 단체, 공간, 사람들의 이야기기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춘향골교육공동체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마을에서 그리는내일 그리고 내일



- ① 권태경(청년 여성 농업인)
- ② 김보금(국악인)
- ③ 김양택(학교체육시설관리 매니저)
- ④ 박자연(육가공 공장 더잡삼)
- ⑤ 이성진(청년낙농업가)
- ⑥ 장수호(타일시공사)
- ⑦ 장현미(매일꽃 피는 향아리)
- ⑧ 최순호(지리산 닳다 담다)

동지역 상세 지도



- ⑨ 김경림(언어심리 상담사)
- ⑩ 김민화(캐릭터 디자이너)
- ⑪ 김양오(남원문화유산 해설사)
- ⑫ 김지현(남원페이지 관리자)
- ⑬ 김태수(연극예술인)
- ⑭ 김태훈(공무원)
- ⑮ 나혜영(미미떡카페공방)
- ⑯ 박꽃하얀(캐릭터 굿즈 디자이너)
- ⑰ 박석주(작곡가&기타리스트)
- ⑱ 박원배(대금 연주가)
- ⑲ 서진희(랄라/놀자)
- ⑳ 서현희(아나운서)
- ㉑ 양규완(그래픽 디자이너)
- ㉒ 유치석(학예 연구사)
- ㉓ 이상원(소방관)
- ㉔ 이주현(광고 디자이너)
- ㉕ 정그림(요리연구가)
- ㉖ 정소미(디저트카페 모련)
- ㉗ 조형아(192갤러리카페(공방))
- ㉘ 채복희(성지서림)
- ㉙ 최한범(영상 제작자)
- ㉚ 함경록(영화영상 제작자)
- ㉛ 형주연(청소년 지도사)

남원 외 지역

- 김리을(한복 정장 디자이너)
- 소빈(북합문화 예술인)
- 이환주(피리 연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

12
청년 여성 농업인

권태경

14
언어심리
상담사

김경림

16
한복 정장 디자이너

김리을

18
캐릭터 디자이너

김민화

20
국악인

김보금

22
남원문화유산
해설사

김양오

24
학교체육시설관리
매니저

김양택

26
남원페이지
관리자

김지현

28
연극예술인

김춘수

30
공무원

김태훈

32
미미떡카페공방

나혜영

34
캐릭터 굿즈
디자이너

박꽃하얀

36
작곡가&기타리스트

박석주

38
대금 연주가

박원배

40
육가공 공장 더잡샵

박자연

42
랄라 놀자

서진희

44
아나운서

서현희

46
복합문화 예술인

소 빈

48
그래픽 디자이너

양규완

50
학예 연구사

유치석

52
소방관

이상원

54
청년
축산(낙농)업가

이성진

56
광고 디자이너

이주현

58
피리 연주가

이환주

60
타일 시공사

장수호

62
메밀꽃 피는
항아리

장현미

64
요리연구가

정그림

66
디저트카페 모런

정소미

68
192 갤러리
카페(공방)

조형아

70
성지서림

채복희

72
지리산 닦다 담다

최순호

74
영상 제작자

최한범

76
영화영상 제작자

함경록

78
청소년 지도사

형주연

문화공간 (기관)

81

국립민속국악원

82

남원교육문화회관

83

남원사회복지관

84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85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86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87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88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89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90

남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9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92

남원 YWCA

93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



94

혼불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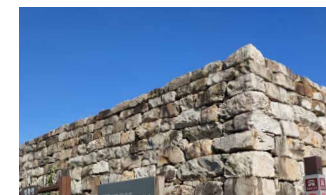


95

꿈꾸는 자작나무

96

남원가온공예협동조합



97

달토끼네 집

문화공간 (일반)

98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99

바늘 그리고 나
손뜨개공방

100

수지미술관

101

우리놀이문화센터

102

쫄재 작업실

103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104

핸드메이드

105

핸드메이드 미



도서관

107

금동 작은도서관

108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109

독우물 작은도서관

110

메카센트럴 작은도서관

111

모모에게 말걸기
작은도서관

112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113

새싹 작은도서관

114

송동 작은도서관



115

오들 작은도서관

116

이그린 작은도서관

117

좋은열매 도서관

118

주천 작은도서관

119

품안 작은도서관

120

혼불 작은도서관

121

황죽 작은도서관

122

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마을에서
그리는내일
그리고 내일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사람들의 이야기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각자의 직업에 대한 현재에 오기까지의 이야기,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 직업으로 보람을 느꼈던 이야기-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회없는 삶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

권태경



“ 한 번뿐인 인생, 후회없이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어요. ”

내가 하는 일요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여성 농업인이구요, 아버지와 함께 보철에서 한우를 키우며 벼농사를 하고 있고 감자, 고추 등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 농부에 딸이었구요. 처음에는 농업에 뜻이 전혀 없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에 가게 되면서 졸업 후 의무 영농기간을 채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농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 제대로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농업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문득 되돌아보면 내가 살아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 이 일도 하루하루가 선택의 기로에서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선택을 하던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선택을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잘못되더라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후회없는 삶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

권태경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매 순간이 후회되고 매 순간이 뿌듯해요. 한 번은 작절을 또 한 번은 희망을 맛보게 해주죠. 농업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싸움인데 농작물을 심고, 자라서 수확하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 시간을 버티고 나서 그간 흘린 땀방울의 결과로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 가장 보람차요.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나 다른 이유로 농작물이 잘 안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힘들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메일로 미리 연락주면 아무 때나 찾아와도 괜찮아요. 6월은 피해주세요. 6월에 극한의 고통을 맞보거든요. sigolfarmer@naver.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탐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하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이 적성에 맞든 결국 그 직업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만 하면 힘들어요. 적성이라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본인의 적성이 아닐 때도 많구요. 직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거지 만들어진 것에 본인을 끼워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한 번뿐인 인생, 후회없이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순간을 열심히 산다면 무엇을 하든, 본인이 어디에 있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진심을 기울여 들어주는

언어심리 상담사

김경림

“

내가 아이와 함께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비전이 있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

내가 하는 일어요

역사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했는데 취재과정에서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준비하다 아이가 아파 지리산으로 내려와서 아이 치료에 전념하는데 함양 쪽에서 자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다 아이가 재발하게 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심리상담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뒀어요. 그러다 47세에 조선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에 합격해 놀이 치료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이연언어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비전이 있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책을 쓰기도 하고 내가 뭘 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한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큰 빚을 지게 되어 딸이로서의 책임감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낮에는 기자, 밤에는 방송 스크립터, 주말에는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집안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난 아이들에게 “절대 엄마 아빠를 위해, 집안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짐을 끌어안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말해요.

진심을 기울여 들어주는 언어심리상담사

김경림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상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내며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상담하는 과정 중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릴 때 아이가 좀 늦는 건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건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장애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꿈과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꿈은 가치가 들어 있어요. 난 어떻게 사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소속되는 것이 더 좋은가? 사람이 더 좋은가? 물건이 더 좋은가? 예를 들면 물건을 더 좋아하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면 카센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사람이 더 좋고 소속되는 것이 더 좋으면 교사가 되는 식이지요.

직업은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찾아 그 능력과 관계된 직업을 가질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체육보다 미술을 더 잘 하는지, 미술보다 글쓰기를 더 잘 하는지, 어떤 교과를 잘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안의 것들 중에서 잘 하는 것을 찾아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한 후 상황을 판단해서 자기표현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언어치료 상담 분야의 실질적 안내도 가능하고, 초등 집단상담을 할 때 같이 가서 견학할 수 있어요.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편집 쪽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어요.

nonunzip@gmail.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은

한복 정장 디자이너

김리을

“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됐던 해보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

내가 하는 일은요

광고 일을 하면서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창시절을 전주에서 보냈는데 전주 한옥마을이 형성되며 관광객이 많아지고 한복을 대여하는 곳이 하나, 둘 생겨나며 음식점이 한복 대여점으로 바뀔 정도로 인기였어요. 외국인 친구와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한복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복 원단은 예쁜데, 불편해서 너희도 평상시엔 안 입는구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한복을 더 멋스럽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복 원단을 이용해 요즘 정장 스타일로 만들면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복 만드는 일은 취미로 시작했어요. 패션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판매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판매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 인천 등 패턴실, 샘플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한복 장인들을 찾아 도움을 받았지요. 동대문 원단 시장을 돌면서 직접 원단을 골라 디자인했고 봉재나 바느질은 업체에 맡겼어요. 처음 만든 한복 정장을 화보를 찍어 SNS에 올렸더니 좋아요가 2만개가 넘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복 정장 화보를 보고 뉴발란스, 휠라, 클라라스 등에서 마케팅 광고 제의가 들어와 직접 ‘디자이너 김리을’이라는 이름을 걸고 광고 회사를 세웠어요.



김리을

‘김리을의 눈으로 바라보고 김리을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라는 모토로 브랜드 광고 일도 하고 있어요. 광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입으로 한복 만드는 것에 투자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한복만 300벌이 넘게 있어요. 한복정장이 유명해져 2017년 3월 브랜드 ‘르’를 론칭했어요. 브랜드 이름을 ‘르’이라고 지은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알리고 싶어서였고, 한복 정장을 만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어요. 한 벌을 만들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제대로 된 한복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이종배 작가에게 연락을 받고 한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 대형 벽화를 그려 화제가 된 분인데 “한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복을 입고 한국을 알릴 분들께는 옷을 무료로 드렸는데 그분들이 김리을의 한복을 입고 해외에 나가 한글과 한복,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릴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때 정말 보람되구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고맙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해요. 힘든 점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고 있어서 인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내게 유일한 꿈은 초등학교때 축구선수였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원하는대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꿈인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축구는 하지 못했지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로란 상황이 많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해요. 수많은 상황에 옆에서 지켜보고 그 친구가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조언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게 성공했다고 말들을 하는데 처음에 한복 정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런걸 뭐하게 하냐고, 그냥 회사나 다니는 게 어떨겠냐 이런 말들을 했는데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현재 패션일과 광고일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메일로 진로상담 가능해요. kimrieul@gmail.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추난이라는 캐릭터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캐릭터 디자이너

김민화

“내가 중학생이라면 굿즈 등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해보는 등 생각만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요

‘추난이네’라는 커피숍을 하면서 어른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추난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여러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추난이’는 춘향이와 반대되는 캐릭터로 춘향이 하면 보통 예쁜 외모를 떠올리는데 요즘 사회가 너무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추난이는 못생겼지만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만들게 되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림을 좋아해서 서양학과를 들어가 공부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하면서 현실적인 일자리인 디자인쪽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창조적인 작업을 할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달리 단순한 작업을 되풀이하는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인터넷에서 디자인 소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수익이 많지는 않았지만 재미 있었어요. 이 물건을 남원에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내 뜻대로 결정했고 지금은 그런대로 일도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추난이라는 캐릭터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캐릭터 디자이너

김민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을 보고 참신하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고객들을 보면 보람되고요. 혼자만의 생각이 현실이 되고 그것들의 결과를 볼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직장인이 아니다보니 수익의 불균형이 생겨 힘들어 질 때예요. 서울에서는 지금보다 많이 벌긴 했지만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좋아요. 여기서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울이 더 답답했죠. 지금도 서울에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은 며칠만 가서 살아도 힘들어요. 제 성향이 그런 것도 같아요. 놀자랩을 통해 여기에 사는 또래 청년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큰 힘이 돼요.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내려왔을 때 주변에서 “애가 적응을 못한다. 끈기가 없다. 생각이 있는 거니?” 등등의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평가가 바뀌었죠.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위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것을 보고, 느끼고, 그 시점에서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그것이 나의 진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만 다니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체험해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되죠. 중학생 시기는 이것저것 다 해 보고 실패해도 되는 시기인데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중학생이라면 지금은 프리마켓 같은 것도 있으니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는 등 생각만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갈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리 연락만 주면 만날 수 있어요. 멘티 학생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여 생산하고 판매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kminh1@naver.com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한

국악인

김보금



“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물놀이를 통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소극적이었던
내 성격이 밝은 성격으로 변했어요.

”

내가 하는 일은요

국악기 중 타악기를 전공했어요. 전통연희(국악)전 공으로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연희단 청연”이란 단체를 만들어 공연, 교육, 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찾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판소리를 배우면서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사물놀이를 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소극적이었던 내 성격이 밝은 성격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며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국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부모님께서도 국악은 배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수입도 적을 거라고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공연을 보시고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신 뒤부터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한

김보금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우리 단체가 기획한 공연을 대중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거나, 교육을 할 때 교육 참여자들이 국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껴요. 이 일의 어려운 점은 시립이나 국립처럼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개인들이 만든 단체이므로 공연 횟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의 가치를 맘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에 괜찮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목요일 오후 2시간 정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요.

boggm@hanmail.net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해요.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지만 그 길은 많은 경험 속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돼요. 사람은 100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고 100가지의 행동을 한 대요. 나는 사물놀이를 좋아해서 하고 있지만 풋살도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을 선택할 때는 행복감과 즐거움 그리고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경험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을 사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마을 활동가

남원문화유산 해설사

김양오

“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진로를 찾아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 삶을 충실하게 살다보면 언젠가 내 진로위에 내가 서있게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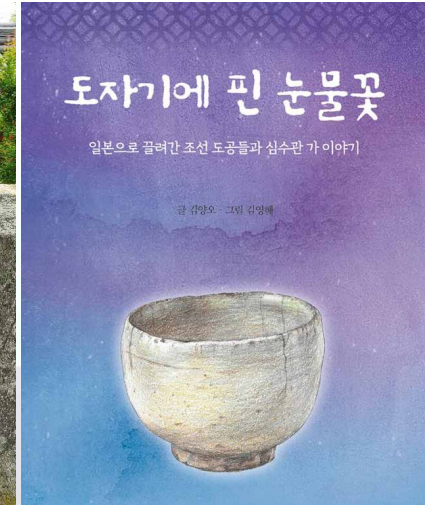
내가 하는 일요

역사 독서논술, 남원문화유산과 역사를 주제로 강연이나 역사기행을 진행하는 문화해설사이며,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마을을 활성화하는 마을 활동가이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 활동가예요.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해서 대학을 사학과에 갔어요. 졸업하고 역사 쪽으로 취업자리가 없었는데 남원에 이사 온 뒤로 남원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었어요. 남원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유물과 유적이 많은 곳이거든요.

시민활동가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선배들이 시민단체 만드는 것에 참여해서 20대 중반부터 인천의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그 뒤 내 삶에 시민운동은 그냥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돈 벌어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도 의미 있지만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변화한다고 믿어요. 지금은 기후위기 시민모임을 만들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남원을 사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마을 활동가이자 남원문화유산 해설사

김양오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문화유산 해설사 하면서 남원시 수지면에 있는 고택 동심재에서 문화재청 사업을 하고 있어요. 10년동안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해설을 해 오다가 드디어 큰 사업을 하게 되어서 기뻐요. 혼자 하는 일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어렵긴 하네요. 후회되는 일은 20대 후반 때 성공회대학교 교사이카데미를 다녔는데 그때 유명한 신영복 교수님의 인기 있는 친필 글씨를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사람에게 친필 글씨를 주셨는데 내가 실천한 사례는 그 어떤 사람들의 것보다도 훌륭한 사례였는데 단지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언제나 적극적으로 발표해요. 친구들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칠 때 10대 때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 같아요. 내 꿈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역사를 좋아한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자주 바뀌었어요. 법륜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꿈이 있으면 괴롭다고, 꿈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 이루어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진로를 찾아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 삶을 충실하게 살다보면 언젠가 내 진로 위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오후, 남원 역사 탐험 프로그램과 함께 할 수 있어요.
woosoli@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운동을 사랑하는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

김양택

“ 스포츠 분야라면 엘리트 스포츠로 선수가 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에 대해 관심 가지고 도전 해보세요. ”

내가 하는 일은요

(사)남원거점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관리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거점스포츠클럽은 우리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문 지도를 통한 지역 초중고 선수육성 및 국가대표를 키우기도 하고,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클럽이에요. 탁구·테니스·복싱·축구 종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 청소년 지도사로 시작하여 지리산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활동하다 2010년부터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축구 코치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거점스포츠클럽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을 일반인에게 개방시켜 주고, 또한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하거나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르쳐요.

김양택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을 직업으로 즐기며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체육인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는 제자나 후배들이 곳곳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참 보람돼요. 이렇게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서 아쉽기도 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거점스포츠와 연계하여 토요일 오전 두 시간 15주 동안 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이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체육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체육과 관계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요.

kyt4508@naver.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어른들은 스포츠 분야라면 엘리트 스포츠로 선수가 되는 길만 있는 줄 아시죠. 그래서 운동 쪽으로 진학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스포츠 마케팅, 실버 스포츠, 뷰티헬스케어 등 상당히 다양한 진로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종목의 선수만이 아닌 다양한 진로들에 대해 잘 알아보고 자신과 맞는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때 진로를 위한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한 가지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지 않나요?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일에
도전하며 사는

남원페이지 관리자

김지현



“ 내가 가진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장점을 펼쳐보세요. ”

내가 하는 일어요

내 직업은 도전자죠. 왜냐면 간호사, 프랜차이즈, SNS관리자, 정치인 등 해보고 싶은게 너무 많고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고 있거든요. 현재 하는 일은 남원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 크레이터클럽 너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남원페이지는 SNS를 활용해서 지역에 다양한 소식이나 상점들의 니즈를 정리해서 SNS에 홍보 해주는 곳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 군대에 갔고 군생활을 하며 좋은 상사를 만나 도움되는 말도 많이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대학에 진학해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생활 반을 열심히 놀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SNS에 관심이 생기며 ‘남원쌈다말해’라는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청소년들에게 꽤 유명세를 탔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도 해봤는데 다른 분야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병원 일을 그만두고 남원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도 해보다가 지금은 남원으로 돌아와 남원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잠깐이었지만 지역국회의원실에서 비서로 일도 해봤어요.

많은 일에 도전하며 사는 남원페이지 관리자

김지현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남원페이지를 운영하는 일에 가장 큰 장점은 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온라인상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홍보할 때 내가 올린 홍보물들을 보며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반응들이 있을 때 보람되며, 이러한 일들이 내 자신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어려운 벽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그럴 때가 후회되고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한데 그런 분들에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해요. 학창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방향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봐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이젠 나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너무 단순 지식만 쌓는데 전념하지 않길 바래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꼭 찾아보고 도전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만의 장점을 펼쳐보세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SNS 활용법과 관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요.
g3k9qm6@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강사, 연극강사

연극예술인

김춘수

내가 하는 일은요

연극 공연을 하는 배우이자 연극을 가르치는 강사와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형이 참여하는 연극 공연을 보았어요. 50여명 남짓의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연장이었는데 공연이 시작되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암전,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배우의 대사, 그리고 천천히 밝아오는 조명을 보며 난생처음 연극 공연을 맛보았지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느낌, 연극에 대한 호감이 들면서 그냥 연극이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걸음을 떼고 앞이든 뒤든 내딛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동
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겠지요.”

물론 연극을 직업적으로 갖는 순간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업사원,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10년 이상이 지난 뒤였는데 지금의 현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늘 부족한 연기자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도전하게 되었지요.

김춘수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연극이라는 직업은 얼마이지 않는 자유로운 프리랜서로서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감정적 시간을 많이 향유하게 되는데 그게 스스로가 그나마 잘하는 부분이기때다행이란 생각도 들지만, 가끔 경제적으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요. 그리고 공연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연극이 끝나고 다양한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때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강사로의 보람이라면 만나는 아이들, 청소년, 일반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즐겁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예요. 다만 어려움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과정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한적 만남과 한정된 시간에 공감을 이뤄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점이지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주말(토*일) 오후 2시 이후 약 2시간 정도 예술가처럼 바라보기 - 함께 걷고, 보고, 관찰하고, 느낌 나누기 등을 할 수 있어요.

dotoori777@hanmail.net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걸음을 떼고 앞이든 뒤든 내딛는 행동이 필요하지요. 행동에는 당연히 책임은 따르겠지요? 고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머리에서 가슴(마음)으로의 여행. 가슴에서 손 발끝으로 이어지는 여행. 어렵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여행이 필요하지요. 청소년 시절 진로 탐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분별력도 기를 수 있고요, 선택의 폭도 넓어질거라 생각해요. 시간을 내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요, 책이나, 연극, 영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도 좋구요. 사람들에게 집중해보고 탐색하고 관찰하는 행동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요. 또한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 사물 등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습관, 예를 들면 산에 오르는 것도 좋고, 오솔길을 거닐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지 않나요?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책 읽기를 좋아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김태훈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 그 이상의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들고 실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요

내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하는 일들이 각기 다 달라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부서를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일하기도 하고 시청 내에서 일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은 시청 내에서도 힘든 부서 중 하나인 기획실이라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남원 시청 조직이 시민을 위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도 하고 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김태훈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막상 공무원이 되고 보니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 그 이상의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들고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민들을 돕고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지요. 그럴 때 보람도 느껴요. 반면 공적인 일을 처리하다보니 법적인 근거와 공정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하게 되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가끔은 공무원에 대해 답답하다고 느끼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 개선해 나가고 싶는데 그러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직업군 안에 있다 보니,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으로 욕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이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는 직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 진로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책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책이라고는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삶의 터닝포인트 중 하나는 책 읽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어느 정도 직장 적응할 즈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경쟁력도 자신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행히 책을 접하고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책에 모든 답이 다 있더라고요. 공부 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연애 방법도 다 책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라도 알았다면, 왜 나에게 여자 친구가 없는지 고민도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서울대(?)도 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에는 많은 노하우와 지식,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었죠. 친구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연락하면 상담이나 인터뷰 가능해요
hooney1002@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호기심 많은, 한번 해보라고 믿어주는

미미떡카페공방

대표 나혜영

“

부모님의 더 좋은 것을 쥐어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멈추게 해요.
스스로 해보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

내가 하는 일은요

미미카페공방을 운영하며 떡을 만들고 판매하며 떡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인들과 카페를 차리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메뉴 고민을 하면서 다른 곳처럼 치즈케이크 등을 납품 받아서 파는 것보다 우리만의 메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전통 떡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보자는 것이었어요. 떡 중에 설기는 백설기, 무지개떡 정도가 일반적이는데 찾아보니 수박설기, 바나나 설기 등 메뉴 개발이 가능한 걸 알게 되었어요.

쉬는 날마다 여기 저기 공방을 다니며 배우면서 미미카페공방을 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전래놀이나 천연염색을 배워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맛있고 멋지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거 같아요.

호기심 많은, 한번 해보라고 믿어주는 미미떡카페공방 대표

나혜영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학생들과 떡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행동이 부산해서 힘들 거라던 아이들이 더 야무지게 잘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볼 때, 떡을 안 먹는다는 아이가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떡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떡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 보람을 느껴요. 새벽부터 일찍 시작해야하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며, 좋아하는 일이어서 자꾸 더 하게 되고 일을 벌이게 되어 몸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 힘든 것도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없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꽃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스스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돈이 들어서 힘든 경우가 아니면 뭐든 해보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해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면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니까요. 떡을 만드는 체험을 할 때 부모님은 수업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부탁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간섭을 하시면 아이가 그냥 멈춰버리고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더 좋은 것을 쥐어 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멈추게 해요. 스스로 해보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연락주면 평일과 주말 오후 4시부터 2시간 정도 상담, 직업체험 등이 가능해요.

ivwuo@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동화같은 삶을 사는

캐릭터 굿즈 디자이너

박꽃하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요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판매하는데, 주로 뱃지나 인형, 문구팬시류 등을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상대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국내는 SNS를 통해서 작품이 나올 때마다, 해외는 수공예 전문 홈페이지가 있어서 옥션이나 이베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면서 문구 팬시 종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화를 좋아하다보니 영화캐릭터에도 관심이 많아 취미로 만드는 것을 즐기다보니 하게 되었고요, 좋아하는 일이라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일을 하면서 제가 만든 제품들을 받고 고객들이 맘에 든다는 칭찬 리뷰를 남겨줄 때 가장 보람되고요, 때로는 동물보호와 관련한 굿즈를 제작해서 수익금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작지만 동물보호를 위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나름 뿌듯하기도 해요. 반면에 굿즈 제작은 최소수량이 있다 보니 재고가 남게 되는데요, 재고를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여 정리가 어려운 점, 자영업이 다 그렇듯 매출이 들쭉날쭉한 점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매가 힘들어진 점들이 어렵네요.

캐릭터 굿즈 디자이너

박꽃하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라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옛날과 다르게 평생직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 것 같아요. 나만해도 캐릭터 굿즈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나의 전공을 살린 특수교사 임용고시도 준비 중이고, 나중에는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는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렇듯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로 아닐까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궁금한 것을 메일로 적어 보내주면 진로상담 가능해요

riniss@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의 햇빛, 바람, 물, 흙냄새를 표현하는
기타리스트

작곡가

박석주

내가 하는 일은요

국악원 객원 기타를 맡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작곡을 하는데 인근 지역에서 하는 구례 화엄음악제, 숲 치유 문화예술제 “귀정” 등에 참여했고요, 2017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서울 고래 극단 대표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어요. 사춘기 시절부터 뮤지션의 길을 꿈꿔왔으며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지만, 내 의지대로 뮤지션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음악을 배울 때는 실용음악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레코드와 라디오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자기를 재발견하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를 한번 뒤집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필요해요.”

남원의 햇빛, 바람, 물, 흙냄새를 표현하는 기타리스트 & 작곡가

박석주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음악의 뿌리는 남원의 자연에 있어요. 햇빛, 바람, 물, 흙냄새 등등 많은 영감을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받고 창작의 원리로 누리고 있으니 이게 가장 큰 보람이며, 내가 만든 음악과 연주로 무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공감받을 때가 가장 기쁘요. 어려움은 역시 현실적으로 넘쳐나지 않은 아티스트의 삶이죠.

친구들과 나누고싶은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청소년기에 나의 정체성을 알기위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만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학을 다녀온 많은 음악인들이 말하길 처음에는 엄청난 음악의 진리를 배우고 올 것을 기대하고 가지만 유학을 가면 “너만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멘탈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음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여기에 있는 흙냄새 바람소리 그런 것들을 창작의 원리로 가져가라. 그렇게 나만의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해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동기가 필요해요.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자기를 재발견하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를 한번 뒤집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것은 책이든 선생님이든 뭐든 좋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거죠.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수요일 오후 2시간정도 가능하며, 함께 음악 감상을 하고 대화의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gentleraw@hanmail.net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끊임 없이 연습하며
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대금 연주가

박원배

“ 성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자신을 이겨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요

국립국악원에서 대금연주자로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대금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대학을 바이올린으로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던 중 국악을 하는 친구 연습실에 따라갔다 선생님께서 대금을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운명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대금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고 싶다면 해봐라”라는 부모님의 한마디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배우며 악기구입에 레슨비용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갑자기 전공을 바꾸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20살이라는 나이에 남들보다 뒤늦게 대금을 시작했지만 그 때 나의 선택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끊임 없이 연습하며 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대금연주가

박원배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았을 때가 가장 좋지요. 2년전 카자흐스탄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보니 고려조 우리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전통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하고 귀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공연을 하는 나에게도 전해질 정도로 연주에 집중하며 끝났을 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 주셨어요. 그 분들의 감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적 정서는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며 다른 어떤 공연보다 더 보람되고 뿌듯했어요.

대금은 한 번 연주를 시작하면 그 자세 그대로 쉬지 않고 2시간 정도를 이어서 연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골반, 어깨가 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 점이 힘들어요. 또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고 들이 마시는 호흡도 중요한데, 이 호흡에 따라 내고자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해서 연습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자신을 컨트롤 해야 해요. 그러다보니 다른 악기에 비해 집중이 많이 필요하지요. 성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자신을 이겨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평생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일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면 후회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을 하다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찾았다면 철학과 신념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시절 자기만의 멘토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후회 없는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사전 연락 후 국악에 관련한 진로상담 가능해요
wonbae50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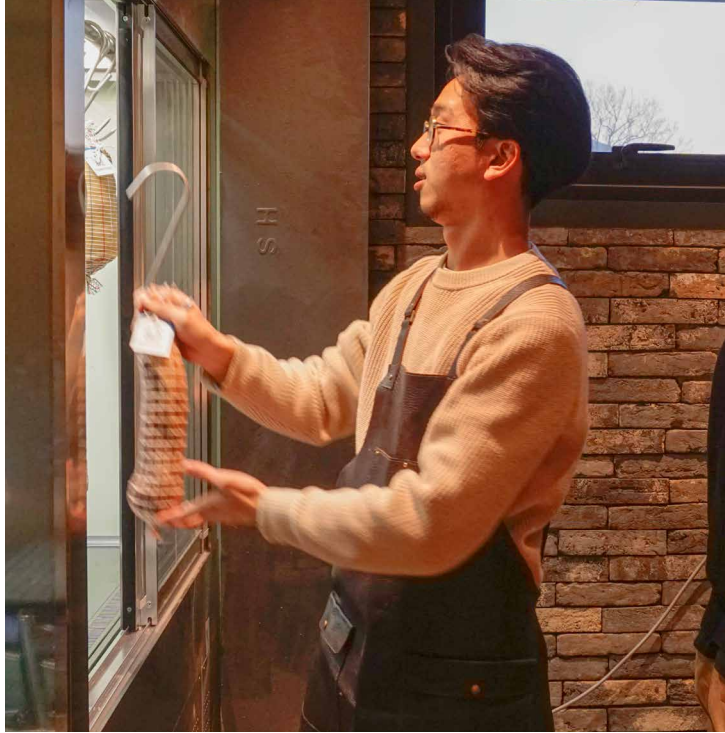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꿈이 이끄는 삶을 달리는
육가공 공장

더잡샵

대표 박자연



“

한 두번의 경험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

내가 하는 일은요

버크셔라는 흑돼지를 이용한 작은 유럽식 발효육가공 공장을 친구와 동업으로 운영하며 하몽, 살라미, 발효 생 햄, 소시지 등 25가지 정도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안정이 되면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고,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외식사업을 하고, 또 육가공품 안주가 잘 어울리는 와인바도 생각하고 있고, 와인과 육가공품을 세트로 하는 선물세트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의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재미가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입시미술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갔다 와서 취업을 한 친구들을 봤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던 고민 ‘내가 디자인을 평생일까?’라는 생각과 고민 속에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하몽 그리고 육가공품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업을 이어받는다고보다는 가업을 나에게 맞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했었는데 판매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제품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를 시작해 봤죠. 친구들은 제품이 좀 잘못 나와도 이해를 해주었는데 막상 판매를 시작하니 소비자들은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걸 보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4년 정도의 그 과정을 접고 1년 전 쯤에 공장을 지었어요.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알아보기도 하고, 투자도 받고, 우리가 값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빚을 얻기도 했어요.

꿈을 이끄는 삶을 달리는 육가공 공장 더잡샵

박자연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고객 분들이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리뷰를 달거나 인증샷을 보내주실 때, 특히 아이들이 먹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보람을 느끼구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평일 주말 구분이 없을뿐더러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인정받으려면 실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메일로 진로상담 가능해요.
jaean012@naver.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어느 한 가지 일에 일찍부터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다 보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랑 동업하는 친구가 지금은 양봉을 하는데 중학교 때 한두 번 경험한 것이 기초가 되어 양봉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두 번의 경험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함께 즐겁게 일하고 노는

건축공간 연구소 ‘랄라’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대표 서진희

내가 하는 일요

건축공간연구소 ‘랄라’ 라는 이름으로 건축 관련된 디자인과, 도시관련 연구·조사 일을 하며,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에서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거리, 일거리 등을 고민하며 문화 기획을 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업무를 하고 있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진짜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인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은 전공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일이구요, 놀자 일은 남원에서 청년들과 만나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어요. ‘랄라’ 는 남원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은 이름인데 지역의 건축과 예술에 관한 일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었어요. 이 닉네임처럼 내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 같아요. 건축도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까지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후회되는 건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부분이지만 당시엔 늘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함께 즐겁게 일하고 노는 ‘랄라’, ‘놀자’

서진희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건축 일은 아주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 시공, 기획, 연구 등 그래서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일을 마무리 했을 땐 늘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디자인이든 연구든 무엇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놀자의 기획 일도 남원 구도심에 매력을 느끼고 시작하게 된 일이고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일이라 모두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의도했던 만큼 사람들이 찾아와 호응해주면 보람을 느끼지만 호응이 적은 경우엔 어렵기도 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흔히들 진로나 꿈을 직업과 동일시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진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와 더 연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건축 설계든 도시 연구든 문화기획이든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진짜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인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살기’, ‘약자의 편에서 생각하기’ 와 같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는 방향이나 길을 진로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메일로 연락 주면 진로상담이나 미리 시간 맞춰 주면 1시간 정도 인터뷰 가능할 거 같아요.

rhkdak72@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서현희



“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몰라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내가 하는 일은요

아나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구요. 문화기획
섬진강에서 축제문화 기획일을 하며 더불어서 전
주MBC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학
창시절 아침 등교 시간마다 봤었던 교양프로그램
MC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따뜻하게 참가자의
말에 공감하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며, 적
재적소에 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맺고 끊었
던 여자MC는 본받고 싶은 부드러운 리더상이었지
요. 몰래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상황극을 해보
기는 했지만 너무 멋있어서 차마 되고 싶다는 꿈도
못 꺾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신기해요.

그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학생은 성
실하게! 열심히! 라는 생각만으로 학교생활을 했지
요. 그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점수가 방해가 되지는
않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성적관리를 했어요. 고등
학생 때는 물리 선생님이 멋있어서 이과를 진학했
고, 학문은 어렵지만 기술은 쉬워야 한다는 교수님
의 강의내용이 멋있어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학생회 활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연수도 갔다가 졸업을 한 후 진로를 고민하다 해외
연수에 가서 외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취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때 나
도 어릴 적 꿈이 생각나서 돌아와 아나운서에 도
전했어요.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서현희

방송활동을 하며 힘든 점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10분 뉴스
를 위해서는 매일 4시 40분 알람이 필수이며, 화면
에 나오는 모습이 중요하다 보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11시에 있는 5분 가량의 라디오 생방송 뉴
스를 위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있어야 해요. 이
렇게 알게 모르게 삶의 긴장감이 높은 채로 살아가
다 보니 주변에 방송하는 친구들은 잔병치레가 많
아요. 또한 아나운서는 해가 거듭할수록 역할이 변
화되고 있어요. 나를 꿈꾸게 한 아나운서의 역할이
내가 컸을 때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역
할을 정립해가면서 나의 직업을 찾아가야 한다. 이
건 짜릿하고 즐거운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과연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할지 스스로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
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돼요. 아나운서 준
비과정부터 방송 활동까지 기자, 리포터, 영업사원
역할 등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 본 것과 북한 선수
단이 방북했을 당시 합숙하며 사회를 맡았는데 그
런 경험 또한 아나운서가 아니라면 언제 해볼 수 있
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제대회 진행을 맡았는데 경
기장 뒤에서 항상 긴장한 채 연습하는 선수들을 보
면서 하루하루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전혀 우승
할 확률이 없지만, 바다 건너 자비를 들여서 오는 노
장 선수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은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아 만날 기회가 없지요. 이
모든 일들이 아나운서의 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
는 값진 경험이에요.

반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틀에 박
힌 과정이 힘들고, 기관마다 원하는 진행방법
이 달라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 때, 또한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고정적인 정규직이 많지 않아 직업으로 안정
적이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10년 후, 혹은 20년 후 내가 원하는 삶의 모
습을 떠올렸을 때, 그 모습까지 이르는 길을 진로라
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어
요. 그런 과정에서 내 감정을 남에게 허락받지 말
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세요. 물론 그 감
정에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많이 아는 것
과 잘 전달하는 일은 다르니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
는 것보다 세상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
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몰라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
야 하니까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메일로 진로상담 가능해요.

hahahi06@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창의적인 일을 하며
행복하게 소통하는

복합문화 예술인

소 빈

내가 하는 일요

한지로 사람 형상의 조형물을 만들어요. 나무 조각가이기도 하고, 노래하는 가수이기도 해요. 때로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이기도 하며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이기도 하죠. 또 식물과 꽃으로 원예 상담을 하고 미술심리 상담가로 활동 중이며 타로 상담을 하기도 해요. 많은 일을 하지만 모두 자격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복합문화 예술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내가 하는 일은 거의 창의적인 일인데 창의적인 일은 뇌를 신선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평생 하고 싶어요. 나의 창조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나와 어울리는 일이라 생각해요.

“
내가 하는 일은 거의 창의적인 일인데
창의적인 일은 뇌를 신선하게 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평생 하고 싶어요.”

원래는 노래하는 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족에게 한지로 인형을 만들어 주면서 한지 인형을 만들게 되었고, 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이것을 취미가 아닌 일로 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20시간 정도 작품을 만들었는데 눈을 감고 만들 정도로 이 일이 너무 좋았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전시도 하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전시할 일이 생기면서 유명해졌어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프리랜서이다 보니 수익이 들쭉날쭉해서 경제적 충족감이 약한 것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견딜만한 어려움이고 그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만나면서 아름다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보람이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부단히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을 너무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절 진로 탐색시 공연,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화예술은 국가의 뿌리이며 사회적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은 국, 영, 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하느라 문화예술은 거의 뒷전인데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서 이런 문화예술을 공교육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어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재능에 따라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면 우선 돈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사전 연락 후 진로상담, 인터뷰, 혹은 개인 상담 가능해요.

beanhappy@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진로를 늘 고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양규완

“ 주변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기도 할거예요. 자신을 의심치 마요. ”

내가 하는 일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디자이너 '양간'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수업시간에 책에다 낙서를 하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재미있더라고요.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이 좋았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좋았어요. 낙서로 그렸던 그림을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그렸다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어린 시절의 칭찬과 인정이 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사실 해보고 싶었던 분야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였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디자인에 그림을 접목시키며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 대중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때 좀 더 부모님을 설득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쪽을 전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진로를 늘 고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양규완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디자인 작품이 제품으로 나와 판매가 되고 그 제품을 받아보신 고객 분들께서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반면 고객과 연락이 늦어져 고객으로부터 정보량이 저에게 충분하지 않은데 결과물은 빠르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객의 업무 요청이 오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다음날 오전에 결과물을 받길 원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밤새 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 난감할 때가 종종 있어요. 디자인 계열은 노출이 아주 중요해서 SNS도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실력만 좋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토익, 컴퓨터 자격증 등의 빈칸이 흠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서류에 존재하는 빈칸들을 보며 많이 채울 걸 하는 후회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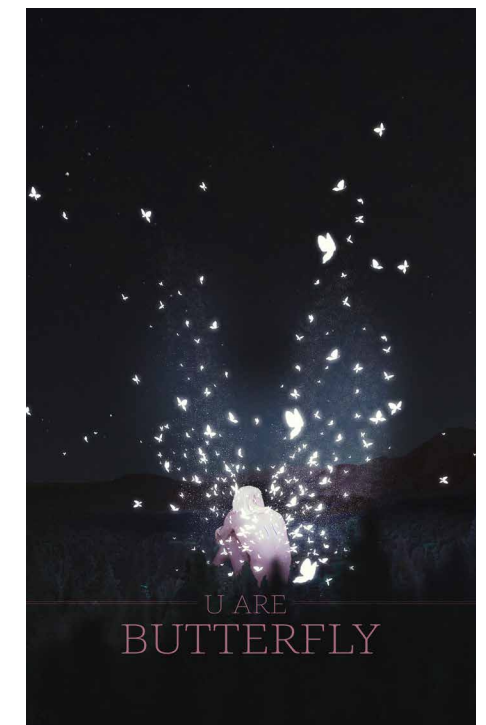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상담 가능
wowwowa@naver.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라는 건 평생의 고민거리죠. 진로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진로는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학교 때는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알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힘들면 포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해보는 끈기를 지니는 게 더 중요해요. 포기가 너무 빠른 건 좋지 않거든요. 저는 지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라이벌을 만들기도 했고, 오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 보기도 했었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고 주변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기도 할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 해보세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라고 권하는

학예연구사

유치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미치도록 빠져 보세요. 놀 때도 미친 듯이 놀아야 해요. 싱겁고 미지근하게 했던 일들은 인생에서 별 도움도 안 되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요

남원시립 김병중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예연구사 주 업무는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미술 작품(박물관이라면 유물)을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일이에요. 그 밖에 미술관 운영 계획·행정·시설 관리 등 부대적인 업무들도 있어요. 군대 전역 후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 관련 일을 찾아보다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해 미술사학과 석사 학위 취득, 경력인증기관에서 일을 배우며 경력 쌓기 등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았지요. 2016년 남원에서 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학예연구사를 모집할 때 지원했는데 합격해서 남원시립 김병중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지치지 않거든요.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앞으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게 될 김병중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전시할 수 있다는 점과 남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요. 새롭게 막을 올린 전시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전시 내용에 공감해 주시면 보람차고요, 아주 가끔 저의 기획 의도를 읽으시는 분이 계시면 더 큰 보람을 느끼지요.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라고 권하는 학예연구사

유치석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가 말 그대로 ‘나아가야 할 길’이잖아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지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맞추기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진로’와 ‘직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로탐색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감 정도는 잡을 수 있죠. 그 밖에 일들은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 제목을 보면 불광불급(不狂不及), 즉 미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미치도록 빠져 보세요. 놀 때도 미친 듯이 놀아야 해요. 싱겁고 미지근하게 했던 일들은 인생에서 별 도움도 안 되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서면을 통한 진로 상담은 가능해요.
yoocheguk@korea.kr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방관

이상원



“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먼저 나를 잘 살피고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더욱 개발해서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내가 하는 일은요

18년째 소방관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 소방관직은 크게 화재진압,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교통사고 등을 처리하는 구조대원, 재난을 예방하는 내근부서 등 네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응급환자를 살리는 구급대원으로 외근부서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구급대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병원 현장에서 2년 정도 직접 환자들을 대하며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남원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체험관 교관, 소방안전 교육,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학창시절에는 소방관에 대해 잘 몰랐는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소방공무원을 보고 위험한 상황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로를 소방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시민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한 응급처치로 안전하게 구조했을 때, 보호자가 두 손을 잡으며 “고맙고, 감사하다.” 말씀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끼지요. 반면 응급환자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처치를 했음에도 그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너무 맘이 아파요. 소방관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럴 때 서로 위로도 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대화를 많이 하지요. 소방직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극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입 소방관이 들어오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응원의 시선에 충분히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고 말해주지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내가 사탕을 갖고 있어야 그 사탕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무엇이든 주고 싶으면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먼저 나를 잘 살피고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더욱 개발해서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망설임 없이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겠지만, 여유치 않을 때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 잘 관찰해서 꾸준히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진로 찾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남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소방관직에 관심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소방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소방서에서 늘 문 열어 놓고 기다릴게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직업체험, 인터뷰, 현장 견학이나 진로상담도 해줄 수 있어요.

modellsw@korea.kr



농촌의 비전을 보고
도전하는

청년 축산(낙농)업가

이성진

“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 저 같은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비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

내가 하는 일은요

축산업 중에서도 낙농업이라고 젖소를 키워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소방관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군대에 갔을 때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일을 도와주며 자라서 나에게는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 농촌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 나 같은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이 많다는 점도 한 몫 했지요.

제 꿈은 젖소 하면 이성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과 나같은 청년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는 점 또한 스스로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해요.

농촌의 비전을 보고 도전하는 청년 축산(낙농)업가

이성진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보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젖소를 키우는 일에 있어 대표적인 일은 사료주기, 우유생산하기, 젖소 분노 치우기 등인데 요즘은 사료는 사료 판매하는 곳에서 주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는 일은 매일 같이 해줘야 하는 일이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쉴 수 없다는 점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점 등이 힘들어요. 분노는 날마다 치우는 것은 아니지만 한우에 비해 젖소의 분노량이 많아 이 일도 쉽지만은 않지요. 또 한 가지 축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축산규제로 인해 축사를 새로 짓기가 힘들어서 그 점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SNS나 전화를 통한 진로상담, 또는 미리 연락주면 인터뷰 가능해요.

tjdwls_0578@naver.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자신을 알아가며 조금씩 꿈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시기에 맞는 일들은 모두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서 축산업을 1년 정도 배우고 대학을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막연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다보니 학교 생활에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배우는 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시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산 관련 고등학교를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관계 없는 고등학교 선택으로 중요한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광고 디자이너

실장 **이주현**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 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은요

광고사 시각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으면서 경리(회계)일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플루트를 꾸준히 배웠었어요. 좋아서 했던게 아니라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는 나에게 플루트가 진로라고 생각 했었나 봐요. 플루트를 그만 두고 나니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이 광고사를 하고 계셔서 내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권유로 광고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재미도 있고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에게 맞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갑자기 나의 어린 시절 잊고 있었던 꿈을 물어 보셨어요. 그때 한참 김장훈의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버스를 운영 했던 TV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면 학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 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를 만드는 일 같은 좋아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광고디자이너

이상원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 즐겁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금방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할 때는 백지로 시작하지만 완성되면 결과물이 생긴다는게 정말 뿌듯하고 보람되요. 이 일을 더 일찍 찾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맘과 광고 디자인이라는게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작업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다른 디자인도 많이 접하고 비교하면서 전시회나 강연 등도 참여해서 배우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힐 때 우울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평생을 해도 싫증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면 좋겠어요. 어떠한 선택의 길에 있어 1%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그 선택의 기준점이 되면 좋겠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광고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설명, 진로상담 가능
mind7654@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우리의 소리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피리 연주가

이환주



“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토론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다보면 자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내가 하는 일요

국악기인 피리 연주자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공연도 하고, 남원이나 임실 농악단에서 피리 연주도 하고 있어요.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나 개인적으로 피리를 가르치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야금 명인이시다보니 부모님과 함께 남원 국립국악원 공연을 종종 보러 다니며 귀와 눈으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나 방학에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하였던 국악 교육 프로젝트 강습을 받으며 단소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워보며 꿈과 진로를 우리 음악으로 잡게 되었지요.

어머님께서 대금 소리를 좋아해서 대금을 먼저 시작했지만 신체가 왜소했던 나와는 맞지 않아 고민하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피리 연습실에 들어갔다가 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불어보기도 하면서 피리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피리는 국악 관악기 중 소리가 가장 크다 보니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연락 주시면 직업체험이나 진로상담 가능해요.

dakstart607@naver.com

우리의 소리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피리 연주가

이환주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연주가로서 보람은 감동을 줘서 많은 관중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겠지요. 박수를 받는 것이 보람찬 일이지만 또 박수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피리는 호흡을 전부 다 쏟아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연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를 연습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고, 삼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악기 연주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피리로 자연의 소리를 만들어 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들었던 만큼 그 만큼의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보니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지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진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픈 것을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것이 방향이 되어 나의 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릴 적 체격도 왜소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숨어지내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들과 장난치고 게임하고 무언가 대화할 때 내 성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국, 영, 수 위주의 공부를 할 때면 잘 모르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경험으로 보자면 청소년 시절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봤던 것 혹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대화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다보면 자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도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고요.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분야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등을 나누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진로 아닐까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타일시공사

장수호



“

직업과 삶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행복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일과 행복, 둘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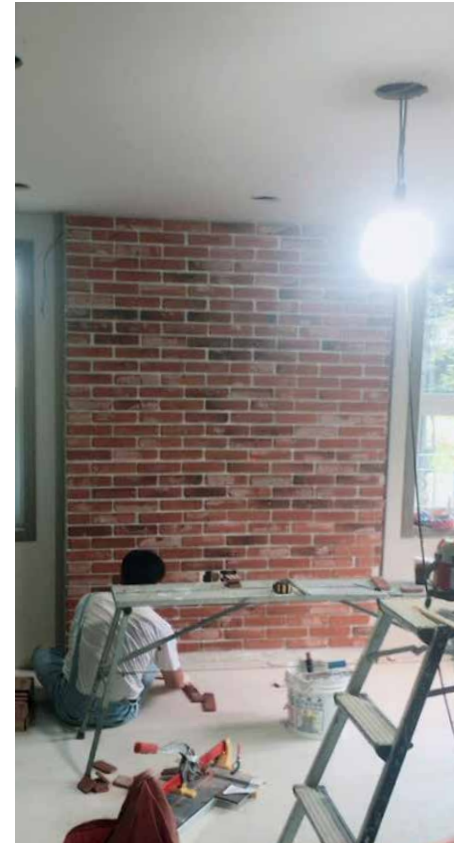
”

내가 하는 일은요

바닥이나 벽에 타일을 시공하는 인테리어 분야의 일이에요. 예전에는 타일 하면 화장실에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상가건물의 에폭시(바닥 시공)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에 타일을 깔끔하게 붙여 화사한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다 휴학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 중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육성마 조련 일을 하다가 취업시장이 좁고 개척하는 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포기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다 아는 형님의 소개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잘 맞았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타일시공사

장수호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타일 시공을 다 한 후 완성된 결과물을 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이 일의 장점은 일정조율이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농사가 힘드신데 자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정년이 없고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수입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에 60세가 넘으셨는데 일요일은 다 쉬시면서 월 1,000만원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 몇 년은 배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면 팀에서 불러줘요. 그렇게 배우면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독립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이예요. 이 일을 잘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해요. 커다란 타일을 들고 옮기려면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한 꼼꼼한 성격이면 좋아요, 1mm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나를 믿고 목표를 찾아가는 길인데 직업과 삶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경우는 행복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일과 행복, 둘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성인이 되고 현실적인 문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전공 분야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서 대학을 휴학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직업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일반적인 상식 정도가 아닌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이 직업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고, 진로에 관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줄 수 있어요.

flysuho11@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메밀꽃 피는 항아리

대표 장현미

“
전통음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
거리를 엄마의 맘으로 모든 사람에
게 만들어 준다는 보람과 자부심으
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메밀꽃 피는 항아리

장현미

내가 하는 일요

메밀꽃 피는 항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음식
중에서도 한과와 떡 종류를 만들고 있어요. 어머님
께서 30년 넘게 한과를 만들고 계시는데 남편이 어
려서부터 보고 자라와서인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10년 전 남원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께 한
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
요. 한과를 먼저 시작했지만 평상시보다는 명절에
잘 팔리다 보니 다른 제품에도 눈을 돌려 모시송편
이라는 품목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시송
편 또한 명절에 잘 팔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아
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평상시 즐겨 먹을 수 있는
떡 종류를 고민하면서 만든 제품이 ‘뚝뚝한 치즈아
이 떡볶이’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치즈는 임실에서 생산하는 치즈
를 사용하며 평상시 아이들이 섭취하기 힘든 콩가
루, 단호박, 흑미 등을 사용해 색을 내서 건강한 먹
거리로 만들어 지역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하며, 마
켓컬리나 지마켓 등 온라인 유통도 하고 우리 지
역 학교 급식에도 저희가 만든 떡볶이가 들어가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나며 말
리실 정도로 한과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찹쌀을 삶는 과정에서부터 찌고, 말리고, 자르고
하는 일들을 직접 손으로 하다 보니 정말 힘이 들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
하고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모두
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뿌듯함에서 보람과 자부심
을 느끼기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평생 나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진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내 일을 할 텐데 일이라
는 것이 직업도 될 수 있고 삶의 방식도 되기 때문
에 동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탐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해요. 저
도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데 이 때는 다양한 경
험을 통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등 자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화요일 5시, 전화로 진로상담 가능해요.
ts971002@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요리연구가

정그림



“

**요리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경험이에요.
요리 실력은 대학생이 되어 혹은 일을 하면서 늘릴 수 있지만
경험은 때를 놓치면 하기 힘들어요.**

”

내가 하는 일은요

남원에서 요리강의, 지역요리 메뉴개발 및 컨설팅, 그리고 차이룩 쿠킹스튜디오에서 원 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요리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 섬에 가서 그 섬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본다가나, 할머니들을 모시고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즐겁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늘 엄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집에 있는 요리책을 보면서 자랐어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시고 잘 하셨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뭘 잘 하신다고 하면 재료를 사다 놓고 모셔서 배우곤 하셨지요. 요즘으로 치면 쿠킹클래스인 셈이죠.

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엄마가 요리를 하실 때 옆에서 보조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다 준비하신 것을 나는 넣고 건지고 한 것뿐인데 요리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 요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국립대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한 학기 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요리와 달라서 그만둘 때도 엄마는 나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셨어요. 유명 요리연구가에게 데리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죠. 외국에 2년간 공부를 하러 갔다 와서 당연히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가족은 가까이 사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냥 남원에 머물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 분야의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요리연구가

정그림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수강생들을 만났을 때나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요리를 내주었을 때, 음식을 만족스럽게 드시고 감사의 표시를 할 때면 매 순간 늘 뿌듯하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요리라는 일의 특성상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어 피로도가 높는데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후회감이 밀려들기도 해요. 그래서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요리를 할 때 남원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힘들어요. 남원은 프리랜서로 일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이 들어오기도 해서 서울에서 사람을 불러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또 일이 없으면 이 일이 워낙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 쉴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해요. 아직은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고 또 워낙 다양한 체험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시간을 활용하니 좋아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실제로 중학생의 자녀를 두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자녀가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라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요리사는 요리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리 실력은 대학생이 되어 혹은 일을 하면서 늘릴 수 있지만 경험은 때를 놓치면 하기 힘들어요. 경험은 여행을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어 내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경험을 만드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와 같이 개인의 특성은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해요. 그것이 기성세대처럼 나이가 들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선입견들이 파괴되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세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요리실습, 진로 상담 등이 가능해요.

jgl9059@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자신의 선택을 믿고
걸어가는

디저트 카페 모런

대표 정소미

“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다보니 매순간 선택의 길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 것 같아요. ”

내가 하는 일요

‘모런’이라는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내가 직접 만든 쿠키를 판매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혼자 카페 다니기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카페 일을 찾게 되었고, 카페 겸 베이커리 가게에서 매장 관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내 상상 속 가게가 점점 구체화 되었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믿고 걸어가는 디저트카페 모런

정소미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아무래도 손님들로부터 “정말 맛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이고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유니세프, 빨간 우체통에 조금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반면 많은 일을 혼자서 해야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과 가게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힘든 것 같아요. 어린시절부터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선택의 순간순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해준 길을 걷지 않고 나의 길을 선택해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물론 힘들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나는 나의 선택들이 정말 뿌듯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탐색 시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등 스스로를 잘 아는 것부터가 진로탐색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쓰면서 하루의 목표, 한 달, 한 해, 20살, 30살 등 생각나는 목표를 매일같이 세웠어요. 남들은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도 나는 무작정 세웠거든요. 그 덕분에 비록 목표보다 1,2년씩은 늦어졌지만 그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화요일 4시 이후 인터뷰, 현장견학, 진로상담 등 가능합니다.

somi5281@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는

192 갤러리 카페 (공방)

대표 조형아

“
꿈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

내가 하는 일어요

천연제품, 가죽공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드는 공예가인데 공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갤러리카페를 열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면서 공예품 판매도 하고 공예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20대 초반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친구와 우연히 종이를 활용한 주름인형을 만들어 납품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천연비누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던 중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천연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니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오리고 붙이는 등 손을 쓰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는 192 갤러리 카페 (공방)

조형아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려 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날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며 만족해하고 기뻐할 때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내 손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것을 창조한다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또한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수제품을 좋아하는 층이 한정적이고 판매 경로도 그리 많지가 않아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예라는 것이 다 수작업이라 생각보다 고된 작업들이 많아요. 만약 내 자식들이 공예가를 꿈꾼다면, 전 말릴 것 같아요. 다양한 것을 만듦다보니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느질 기법의 종류도 알아야 하고 바느질에 수십 번 찢러가며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작품이에요. 탁자 하나를 만들어도 그 나무의 본질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삼나무는 잘 휘어지고 자작나무는 잘 휘어지지 않는 특성을 알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나무에 찢리고 상처를 봐야 만들 수 있고요. 공예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공예에 관심 있는 친구들 진로상담 가능
-가죽공예, 십자수, 굿즈, 천연제품
다양한 소품 수업 가능
-월요일 ~ 일요일 중 미리 예약 후 진행가능
kohellet@naver.com

아이들이 접하는 공예는 기본적인 작업을 한 후에 간단한 작업만 하는 거라 공예를 쉽게만 생각해요. 완성된 예쁜 작품을 보면 관심을 보이며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기초부터 알려주면 힘들다고 안하려고 해요. 모든 일이 정성과 노력 없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힘들어도 참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어렸을 때는 예쁜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무작정 천문학자를 꿈 꿔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행복한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길을 향해 가는 것이 진로 아닐까요? 중학교 때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접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로가 꼭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진로뿐만이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꿈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일 무엇을 할 것 인지를 매일 매일 기대하고 꿈을 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책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네책방

성지서림

대표 **채복희**

“**서점이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요

성지서림이라는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원, 순창, 임실을 총괄하는 지역 총판과 국정 교과서 보급소도 하며, 서점 내 동아리 방을 만들어 교육 공동체 마을교사로 문화 활동도 하고 있지요. 26년 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자주 편찮으셨는데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남편이 자신의 전공인 경영학 관련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남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서점에서 영업직 직원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지요. 성지서림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책이 좋아서 결혼 전에도 월급 타면 책과 음반은 꼭 사곤 했는데 결국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는 192 갤러리 카페 (공방)

조형아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서점을 하기 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을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이었는데 직접 직장으로서 경험하는 거는 많이 달랐어요. 손님을 맞이하거나 책 정리 등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구요. 초기에는 학습물 시장이 워낙 커서 매출이 높았지요. 허나 점차 줄어드는 독서 인구와 온라인 시장의 거대한 문어발식 경영은 지역 서점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다 보니 아이들의 학습지 매출이 줄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으로 인해 단행본이나 전공 서적의 매출도 줄어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지역의 작은 서점들은 문을 닫기도 했는데 이 점이 힘든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동네서점 살려야 한다고 꼭 잘 버텨달라고 맘을 위로해 주시고 한 부, 한 부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람되고 힘도 나요.

남원은 변두리 소도시이다 보니 정보력도 약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점이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서지도사 자격증, 서평 지도사를 준비했고, 하브루타 질문 대화법을 배우고 교육학과에 편입을 해서 좀 더 깊게 교육을 배우며 성장하려 노력했지요. 그런 과정에 나와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춘향골 교육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마을 교사로써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미리 연락주면 진로상담 가능해요.
sunggisl@hanmail.net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는 끈기와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일이나 잘 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성실히 임한다면 그 일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보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되면 인정을 받게 되고 여유가 생겨요. 그럼 생활이 더 즐겁게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은 끈기와 성실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성실함이 최대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진로는 끈기와 성실성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성지서림내 생활문화 공간으로 인정을 받은 동아리 방이 있어요. 독서에 관심 있는 친구, 서평에 관심 있는 친구, 하브루타 질문 대화법에 관심 있는 친구, 서점 경영에 관심 있는 친구, 또는 고민을 이야기 할 친구가 필요하거나, 길을 가다 지치면 성지서림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 아이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서점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놀이터였어요”, 성지서림은 늘 친구들의 놀이터로 함께 할 거예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고향으로 내려와 벌 키우는 사진작가

지리산 담다 담다

대표 최순호



“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 마디 말 보다 한 장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때 가장 뿌듯해요.”

내가 하는 일요

신문사에서 보도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23년간 했고, 지금은 고향에 내려와 벌을 키우며 마을 공동체사업에 참여해 주민들과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신문사에서 신문에 실을 사진 찍는 일을 했는데 우연히 1988년 5월 명동성당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조성만 열사의 투신 현장을 직접 사진으로 담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의 이미지로 세상을 기록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신문에 들어가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했어요.

특히 조선족 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진작가로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연수특파원으로 갈 기회가 생겼죠. 그 곳에서 조선족들의 열악한 삶 속에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방치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현실에 사진기자로서 언론에 알리며 기독교회관 목사님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사회단체에 도움을 받아 서울 구로동에 외국인 전용 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내려와 벌 키우는 사진작가 지리산 담다 담다

최순호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사진작가 일을 하며 세상을 변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보람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내며 세상에 알렸던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면 내가 사진기자 하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백마디 말 보다 한 장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좋죠. 지금은 벌을 키우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서 딱히 후회되는 건 없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언론사 기자를 꿈꾸거나 기록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사진(이미지)에 대한 상담과 현장지도 및 양봉에 대한 진로상담도 가능해요.

choiphoto@gmail.com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구성체가 각각의 제 역할을 해내야만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땀의 가치를 알고 실현하는 과정이지 사람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란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중학생 시절 진로를 고민하기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게 잘 사는 삶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을 많이 다니길 적극 추천할게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아직도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고 있는 행복한

영상 제작자

최한범

내가 하는 일은요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코’라는 영상제작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홍보영상, 다큐멘터리, 실시간 방송 등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를 벌면서 영상제작기술을 배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싶어서 회사에 직접 찾아가 사람이 필요 없는지 묻고 지원했어요. 직업을 결정할 때 지속성을 생각해요. 수입이 있어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일에 열정이 없거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면 지속할 수 없더라고요. 영상제작일은 수입과 저의 열정 두 가지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어려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역부족을 알고 접고, 고등학생 때 롤 게임에서 전국 200등 안에 들어 프로게이머를 꿈꾸기도 했지만 그 정도 실력으로 프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다녀와서 캐나다로 대학을 갔는데 집이 넉넉하지 않아 20살 이후로 집에서 돈을 지원받지 못해서 스스로 알바를 해서 학비를 벌면서 다녔어요.

“
이제는 누구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틀에 박힌 듯한 삶을 살 수가 없
어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폭을 넓히
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게임기를 갖고 싶어 개를 길러 팔아서 게임기를 산 적도 있었죠. 한때 배관공으로 일하기도 했었고 위험도가 아주 높은 금, 오일 등에 투자하는 해외선물로 돈을 좀 벌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열정이 없이 돈을 좀 벌면 의욕이 사라지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하거나 쓰면서 놀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난 끊임없이 음악과 영상을 좋아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유지해왔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열정적으로 자기를 찾고 있는 행복한 영상 제작자

최한범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고객의 마음에 들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해요. 좋아하는 일을 해서인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과 음악을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 큰 걱정은 없어요. 배관공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편의점 알바만 해도 여유롭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야 해요. 해 봐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행착오도 빨리 겪는 것이 좋으니 뭐든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 자기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자신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실력으로 자신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하면 핀잔을 주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말 바이올리니스트에 걸맞은 태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는 그런 마음이 성공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진로에 관한 교사의 권유를 너무 믿는 것도 생각해봐야 해요. 그분들은 지식은 많지만 세상의 경험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세상의 변화가 무척 빠르는데 지난 날 습득한 지식을 전달하며 사는 일을 하시다보니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술의 변화 속도가 무척 빨라요. 이제는 누구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틀에 박힌 듯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토요일 오전 또는 오후 2시간, 작업체험, 상담, 인터뷰 가능해요.

choihanbum@naver.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이 좋아 남원에 사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영화 영상 제작자

함경록



“ 누구에게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왜 이일을 해야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정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요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라는 곳에서 마을의 이야기나 소규모 업체 등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홍보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어요. 원래 꿈은 영화감독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영화보기를 좋아했었고, 대학 전공도 영화 관련이었어요. 실제로 34살까지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오래전에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장편영화를 만들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상업 영화 제작을 2년 동안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를 받지 못해 영화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을 테마로 영상물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원에 내려와서 공설시장 주변 관광자원들을 촬영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요. 이 사업은 2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상을 만드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사업이 끝난 후 남원에 남아야 할까 떠나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 남원에 매력을 느껴 지금 남원에서 살고 있고 마을 자원 아카이빙 영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계기로 남원의 구도심에 관심이 생겨 2020년 작업의 중심을 구도심으로 잡고 요즘은 어르신들을 만나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변화의 과정인거죠.

남원이 좋아 남원에 사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영화 영상제작자

함경록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이 진로를 선택하고 항상 뿌듯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즐겁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 할 수 있어 행복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후회는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후회하기보다는 아쉽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영화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주위 그 누구도 물어봐 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계속 해야 할지 그만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꾸 이유를 더 정확히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지 내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요. 누구에게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왜 이일을 해야 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정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실 진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진로를 물어보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이르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시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 보고 이유도 생각해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엔 부모나 선생님과는 다른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에 있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가능프로그램 - 영화, 영상제작(다큐멘터리)
가능시간 - 오전9시~오후4시까지의 시간 중 촬영이 있는 날에는 함께 가능함.
realdocs@empal.com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청소년을 사랑하는 맘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는

청소년 지도사

형주연

“

청소년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아픈 친구들을 보면 같이 아파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래요.

”

내가 하는 일요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는 청소년 지도사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그들의 지지자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꿈은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살면서 피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간호사가 하는 일은 거의 피를 보지 않는 일이었는데 안되겠다 싶어 접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1년 동안 행정직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어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맘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는 청소년 지도사

형주연

이럴 때 보람되고 힘들어요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행사프로그램 등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찾아줄 때, 그리고 선생님처럼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는 진로를 선택한다고 할 때 가장 보람돼요.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할 때 예상외의 청소년들이 함께 똘똘 뭉쳐 참여해주고, 안전사고 없이 즐겨줄 때 큰 보람을 느끼지요.

반면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부터 활동까지 책임지는 모든 영역을 지도사가 신경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했을 때 그때서야 한시름 뉘요. 근무일이 주말이다보니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휴일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좋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곤 해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겐 특히나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아픈 친구들을 보면 같이 아파요. 이 일에 있어 기준은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진로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아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중학생 시기는 사춘기가 오는 시기잖아요. 진로를 스스로 찾는 것은 힘들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끼와 꿈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소통도 필요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진로상담 및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운영 가능
gudwndus1@naver.com



마 을 에 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 일

문화공간

기관 이야기

남원 곳곳에 있는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4 | 063. 620. 2300 | <http://namwon.gugak.go.kr>

기관소개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의 보존, 전승과 발전을 위해 1992년 개원 이후 민속악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는 뛰어난 기량을 갖춘 창극단, 무용단, 기악단 등이 있으며, 각 연주단체는 브랜드, 정기, 기획공연 등의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음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국악공연을 통해 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대한민국 창극 축제
- 대표작품 제작 및 우수작품 순회공연
- 국악연주단 기획공연
- 대내외 협력공연

-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 우수예술가를 위한 <풍류마루>
- 명절 기획공연
- 송년 기획공연
-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 인문학강좌 <명창로드>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국악콘서트 다담>
- 어린이 공연 <이야기 보따리>
- 토요일국악플러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상설공연 <광한루원 음악회>
- 지역축제 연계 기획공연

이용/신청 방법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공유자원

국악전시관 무료개방,
공연 전석무료

개방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남원교육문화회관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 | 063. 630. 1243 | <https://lib.jbe.go.kr/necc>

기관소개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를 제공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교육·문화 공간으로, 학생들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학중, 방과후, 자유학기제 등 대상별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특화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방학중 학생교육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성체험위주 특기적성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

방과후 학생교육

- 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진로탐색으로 학생들의 꿈찾기 지원
- 경험위주 특기적성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

자유학기제 지원

-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주제선택활동 등 분야별 자유학기 지원
- 적성과 소질 계발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선택 지원
수능이후
- 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진로탐색으로 학생들의 꿈찾기 지원
- 입시준비와 수능 시험에 매진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연, 특강, 체험행사 운영



이용/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접수

이용요금

무료(학생 프로그램 대상)

개방시간

화요일~토요일 (교육프로그램별 상이)

기타사항

교육프로그램은 화~토 운영, 열람실은 연중 무휴(설날, 추석 당일 휴무)

남원사회복지관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063. 626. 0202 | <https://nswc.modoo.at>

기관소개

남원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전문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살림'의 정신을 사회 복지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이웃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청소년이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사례관리기능

- 사례관리, 금융사례관리,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 등

서비스제공기능

- 꿈 디자이너, 급식서비스, 마을밥상, 후원결연 및 금품지원, 기초푸드뱅크 등

지역조직화기능

- 꿈을 품은 골목놀이터, 작은도서관, 해오라기 마을모임, 신명나는 동 만들기, 자원봉사, 후원 등



이용/신청 방법

전화로 사전 문의 진행 후 담당자와 통화 후 이용 및 신청

공유자원

장소 대여 가능(사전 문의 필요)

개방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00~13:00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전라북도 남원시 함파우길 65-14번지 | 063. 620. 5660-5 | <https://nkam.modoo.at>

기관소개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2018년 3월 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출신 작가들의 전시 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 미술의 특성을 알리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 출신의 김병중(b.1953) 작가가 본인의 대표작을 남원시에 대량 기증하면서 컬렉션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전원형(田園形) 미술관으로서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찾아와 미술 작품 뿐 아니라 자연을 감상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또한 문학인으로 유명한 김병중 작가가 기증한 각종 문학 관련 자료들을 선보여, 미술과 문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약 2,000권의 미술·문학·인문학 관련 도서가 비치된 북카페도 이 같은 미술관의 독특한 역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전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제로 운영됨

교육

- 문화가 있는 날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남원시민 누구나)
- 상반기 하반기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 1) 상반기 - 우리 옛 그림이야기(한국화)
- 청소년진로아트캠프
-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미술교육 및 미술놀이



이용/신청 방법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신청

개방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시까지 연장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102 | 063. 620. 5642-4

기관소개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의거 18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함양, 주민자치, 마을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가 사업에 따로 있지는 않지만 2019년 초 고3, 사회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초출발학교를 진행하였고, 인월면 주민자치회 관련 9회차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총회에 인월고 5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공동체역량강화교육 및 사업

- 꿈꾸는 마을학교
- 마을활동지원가 양성
- 마을계획지원사업
- 아파트공동체지원사업



이용/신청 방법

방문 및 사전 전화 연락

이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유자원

스피커, 마이크, 빔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57번지 1층 | 063. 636. 1365 | <http://nw1365.or.kr>

기관소개

1년 365일 자원봉사로 행복한 남원을 비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및 학교,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가족 봉사단 운영

2019청소년멘토링센터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진로캠프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 각 기관 및 단체)

맞춤형 재능나눔 전문자원봉사단 운영(다양한 영역가능)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랑의 흥부 베이커리)



이용 /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참고 후 전화 문의 신청

공유자원

강의실(30~40명 수용가능, 단 자원봉사와 연계된 활동이나 행사시)

개방시간

월~금(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행사시 개방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전라북도 남원시 관서당길 35 | 063. 625. 3312 | <http://namwon3312.or.kr>

기관소개

미래를 꿈꾸고 현실에 참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꿈·진로·동아리 (청소년 자치 동아리 육성)

청소년참여활성화 (청소년정책제안 및 참여예산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꿈사다리 학교

역사·문화 (청소년명품문화해설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진로·캠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초등 40명)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 및 시설대관현황을 확인한 후 예약/사용

이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9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 8시
일요일 오전9시~오후 6시

공유자원

빨간사과작은도서관 이용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 063. 633. 1977 | http://www.nw1388.com

기관소개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를 근거로 남원시로부터 ‘사단법인 CYA’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전문기관으로 남원시의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해지기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을 돕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업

- 청소년 진로아카데미
- 청소년 상담축제
- 자살예방교육
- 부모교육
- 심리·정서 프로그램
- 대인관계 증진 훈련
- 또래 상담 동아리 지원
- 자기성장 프로그램
- 길거리 상담

통합지원사업

- 운영위원회
- 학교지원단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진로지원 프로그램
- 아웃리치
- 실행위원회
- 1388청소년지원단
- 사업운영보고서
- 문화지원 프로그램
- 긴급구조지원

꿈드림사업

- 개인상담(진로상담, 학업상담, 자립지원상담)
- 학업중단숙려상담 - 문화활동 ‘소풍’
- 집단프로그램(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 복학, 상급학교 진학 지원(원스쿨)
- 검정고시준비지원(스마트교실)
- 잡자(자격증취득지원)
- 잡투어(직업체험) - 진로지원(대학입시설명회)
- 건강지원(건강검진지원)
- 지역특성화(지리산 숲, 소리체험)

청소년동반자사업

- 중,고 위험군 청소년 찾아가는 1:1 상담
- 위기 청소년의 문제 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연계
-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직접 내방 접수 가능.
청소년 누구나 가능(부모상담 포함)

공유자원

지역사회 연계망

개방시간

월~금 9:00~18:00
(1388 전화상담은 24시간 365일 운영)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 063. 625. 3363 | http://namwon0924.kr

기관소개

놀자!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자치시설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주변을 이롭게 하며, 청소년이 쉬고, 놀며, 배우고, 꿈을 키우는 행복쉼터, 행복놀이터, 행복배움터, 행복꿈터의 청소년자치 행복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스스로 안심 프로젝트

(휴식,安心,인성 프로그램 등)

문화 배움 프로젝트

(문화, 예술, 스포츠, 축제 프로그램 등)

즐거워 놀이 프로젝트

(작은작당, 길거리, 이벤트놀이 프로그램 등)

자치 배움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동아리, 봉사활동프로그램 등)

공동체 놀이 프로젝트

(친구, 가족, 지역과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등)

꿈 키움 프로젝트

(창작공모, 수련활동인증, 창의력 프로그램 등)



이용 / 신청 방법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동의 후 가입신청서 작성
이용방법: 청소년들은 수련관에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 출석체크를 한 후 실별 이용기록지 작성 후 시설 이용할 수 있다.

공유자원

짱이춤방, 짱이 밴드방, 짱이놀방, 짱이겜방, 짱이쉼터, 짱이놀터, 짱이먹방, 짱이 체육관, 짱이 강당, 짱이배움방, 짱이동아리방,

개방시간

화~토 09:00~21:00, 일요일 09:00~18:00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3 | 063. 635. 5474 | <https://namwon.familynet.or.kr>

기관소개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한울안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 사업대상:다문화가정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사업기간:4월~7월
- 사업내용:직업유형 검사 및 진로설계, 진로직업 체험캠프, 체험활동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사업대상: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사업기간:2월~11월
- 사업내용: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관계향상, 진로교육, 부모·자녀 집단상담
-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 / 신청 방법

전화로 문의, 홈페이지 신청

공유자원

다목적 회의실

개방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48-63 | 063. 620. 8988 | www.namwon.go.kr/tour/index.do

기관소개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서남권에 위치한 천문과학관으로서 항공과 천문우주의 융합형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과학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과학대중화에 기여하는 전문과학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천체관측

전시관 관람

항공시뮬레이션

VR체험 프로그램

천체투영관 4D영화상영



이용 / 신청 방법

단체관람은 사전 전화예약
개인관람은 상시이용가능

이용요금

성인 : 4,000원
청소년 : 3,000원
어린이 : 2,000원

개방시간

월요일 정기휴관
화~ 일요일 : 10:00 ~ 21:00(동절기)
화~ 일요일 : 10:00 ~ 22:00(하절기)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YWCA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1048-3 | 063. 626. 3626 | www.namwonywca.or.kr

기관소개

YWCA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약어로 ‘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명칭아래 YWCA의 목적을 통하여 이 사회의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크게 여성운동, 아동·청소년운동,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YWCA 청소년부를 위한 Y-틴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의 재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팀리더로 성장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나눔과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탈핵 생명 운동

아동,여성폭력예방캠페인

기관연계봉사활동

Y-틴 동아리활동

-대상:만 15세~만 19세 미만

-활동:진로체험, 봉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등

여 등

-간식, 봉사시간 제공



이용 / 신청 방법

청소년동아리 Y-틴 신청방법

전화 & 이메일 : nmwnywca@hanmail.net

이용요금

연회비 5,000원

기타사항

두 달에 한번 토요일 모임,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간식제공, 봉사시간제공

개방시간

주중 10:00~18:00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255 | 063. 630. 8900 | www.knps.or.kr

기관소개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립공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는데 단순한 견학·체험 활동을 넘어 국립공원 관리이념과 연계한 직업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군

- 국립공원 바로알기

-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군

- 입사과정 및 준비사항

- 국립공원의 활약상

자원보전 분야

- 국립공원의 자원보전 업무

- 국립공원 연구원의 역할

- 자원조사, 모니터링 업무 실습

탐방문화 분야

- 국립공원의 탐방문화 업무

- 국립공원 자연해설 참여

- 자연환경해설사와의 인터뷰



이용 / 신청 방법

https://www.ggoomgil.go.kr

또는 전화접수

이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4월~11월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혼불문학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 | 063. 620. 5744-6 | www.namwon.go.kr

기관소개

혼불문학관은 남원을 주배경지로 쓴 혼불의 무대로 최명희 작가의 문학정신과 남원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2004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명희 작가는 혼불을 통해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와 풍습, 역사, 정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아름다운 말인 사투리, 방언이 잘 표현되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혼불을 읽고 그 감동을 혼불문학고사 풀어보기, 혼불내용 따라쓰기, 엽서•목판 소원쓰기를 통해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으며, 작가유품(만년필, 취재수첩, 상장 및 상품, 편지 외)을 보관
문학관이 있는 노봉마을에는 혼불체험관(유료)이 있어서 천연염색이나 도마만들기, 도자기체험, 고구마감자캐기 등 농촌체험



이용 / 신청 방법

혼불문학관에 직접 예약전화를 하시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혼불]과 최명희작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남원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들어가서도 해설 예약

공유자원

주요 배경지(종가, 서도역, 청호저수지), 안내소 옆 사랑실에는 작은 도서관처럼 소박한 공간이 있어서 책을 읽거나 동아리 예약 후 이용

개방시간

하절기 9:00~18:00, 동절기 9:00~17:00(매주 월요일 휴무)

꿈꾸는 자작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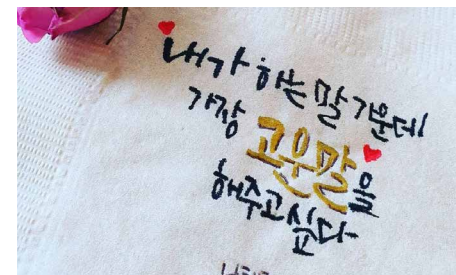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78 | 010. 4373. 5774 | jyk5774@hanmail.net

기관소개

하늘중학교앞 예가람길(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길)에 위치한 꿈꾸는 자작나무공방은 10년째 공예 관련 자격증 과정양성과 취미반과정의 학생들을 배출함으로 지역사회 예술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강사활동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캘리그래피	압화공예	톨페인팅	냅킨공예	팬시우드
컨추리인형	천연화장품	종이접기	실버공예	
양말인형	스트링아트	기초미술	석고방향제	



이용 / 신청 방법

주중에는 외부수업이 있으므로 전화예약 후 이용가능

이용요금

작품이나 과정에 따라 다름
(전화 문의)

개방시간

외부 수업시 닫혀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 후 방문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남원가온공예 협동조합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72. 광남빌딩 3층 | 063. 626. 0202

기관소개

수공예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제공동체로서, 청소년의 바른 인성 발달과 창의력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며 청소년들에게는 취미활동이나 진로체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친환경 제품만들기

-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 보습제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 여성초 샴푸, 레본, 바디클렌저 등

냅킨 공예

원예 공예 (토피어리, 테라리움 등)

페브릭 아트 (에코백, 파우치 등)

팬시우드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상담 후 체험 교육 예약 신청

이용요금

1인 재료비 1만원

개방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기타사항

체험 교육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달토끼네 집

전라북도 남원시 관서당길 45 | 010. 9069. 7077

기관소개

요리 강사와 개발자로 활동하는 주인장이 운영하는 식사카페입니다. 보통 외부 강사 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예약과 주문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식사가 가능한 카페입니다. 로컬재료와 친환경 재료로 조리하고 베이킹합니다. 양식을 활용한 요리가 많고 베이킹은 우리밀과 유기원당, 무항생제 달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단체 도시락과 케이터링, 수제 간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외부 강의는 한식, 양식, 동남아요리, 떡, 제과, 제빵 등이 가능하고 제품개발 및 창업수업도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제과, 제빵 프로그램

한식 프로그램

동남아요리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세계사로 푸는 요리 클래스)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010-9069-7077

인스타그램: 달토끼네집

개방시간

월요일 ~ 토요일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88 | 063. 625. 9525 | <https://blog.naver.com/boigo2015>

기관소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영상,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프로모션 팀입니다. 주로 지역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홍보영상을 제작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영상, 여행, 행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럴 듯한 일자리와 즐기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문화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비정규적으로 진행됩니다.

영화상영회
영상교육

축제, 파티, 공연 등 진행
보드게임 및 그림그리기
청년모임



이용 / 신청 방법

※ 해당 프로그램의 홍보물을 참고

개방시간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월~금, 9:00 ~ 18:00)
복합문화공간 보이고: 동헌길88(화~토, 12:00 ~ 21:00)

바늘 그리고 나 손뜨개공방

전라북도 남원시 전령길 231층 | 010. 6683. 8378

기관소개

코바늘과 대바늘을 활용하여 알록달록 예쁜 소품을 만드는 손뜨개공방 '바늘 그리고 나'는 코바늘과 대바늘로 토드백, 가방, 목도리, 모자, 헤어핀, 러그, 발매트, 의류, 블랭킷, 가렌더 등 다양한 감성 소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손뜨개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손뜨개자격증 과정
일본수예보급협회 보그코바늘입문과정
보그대바늘입문과정

니트리클래스(파우치 만들기)
치매안심프로그램
임산부 태교프로그램 운영
*이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전화로 상
담바람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상담 또는 직접 방문

이용요금

과정별로 수강비가 다르니
전화로 문의바람

개방시간

월, 화, 목, 금 — 오전 10시~3시 30분
금 — 5시~7시
월, 수 —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수지미술관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물머리로 525 | 063. 631. 1009 | www.sujimuseum.com

기관소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던 수지남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남원시 최초의 제1종 사립미술관인 수지미술관(관장 심은희)입니다. 2015년에 개관한 수지미술관은 연간 4회 이상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소중한 미술 작품을 전시·보존하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리산·섬진강과 인접한 자연 환경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원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힐링(healing)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과 예술인들의 소통의 장이 됨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기획전시 18회(국제전시 포함),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상시체험프로그램, 미술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사업, 춘향제 수지미술관 지붕없는 미술관, KB 박물관 노닐기, KB 손해보험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 초리시네마(마을 영화관) 등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공유자원

약 4,000평의 야외잔디공원, 전시공간(4전시실), 교육체험공간, 실내쉼터(휴식공간)

개방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우리놀이문화센터(어깨동무)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86(하정동) | 010. 7563. 1456

기관소개

전래놀이, 전통놀이, 신체놀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놀이활동을 기반으로 정서적,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다도 예절과 전통예절 속에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크레이션과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다양한 놀이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전래놀이, 전통놀이, 신체놀이 프로그램

다도체험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성교육

웃음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

인성교육



이용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공유자원

전래놀이 도구, 다도체험도구

개방시간

평일 오전, 주말 강의, 수업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쫄재작업실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2 | 010. 8981. 2141 | <https://jojaestudio.modoo.at>

기관소개

쫄재작업실은 요리와 놀이를 접목하여 요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창의적인 요리 활동을 주로 합니다. 정서적두뇌와 이성적 두뇌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끄는 질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오감발달에 즐거움을 줄수있는 오감만족 공방입니다. 주로 다양한 각국의 요리와 방법 및 실습 그리고 음식의 개념과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정규 요리수업 진행
각 기관의 수업 요청시 시즌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



이용 / 신청 방법

전화예약 및 카카오톡 "쫄재작업실" 친구추가 후 사전 예약필요

개방시간

월~일 11시 ~ 8시30분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45, 2층 | 070. 4117. 5555 | www.facebook.com/noljanamwon

기관소개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는 지방도시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즐기며 놀 수 있는 청년문화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놀거리를 위해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고, 청년공유공간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놀자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같이 놀자 프로젝트
- 놀자랩투어: 상시, 무료	:비정기
- 메이커체험카페: 토요일 정기, 유료	
- 3D펜 공방, 네온사인 공방: 토요일 정기, 유료	
- 기본장비 교육 및 메이커 심화교육:비정기, 유료	
- 메이커 챌린지:비정기, 유료또는 전화접수	



이용 / 신청 방법

SNS를 통해 프로그램 확인
(페북, 인스타, 카톡플러스친구)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프로그램
사전 예약 / 구글폼으로 사전 예약

이용요금

무료
(단, 프로그램 이용요금 있음)

개방시간

화-금9:00-21:00
토 9:00-18:00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핸드메이드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83 현대아파트 103동 302호 | 010. 9085. 2472 | titi10045@naver.com

기관소개

손으로 만드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에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생활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더 나아가 재봉이나 바느질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0년 정도 재봉기를 이용한 강의를 했으며 여러 동아리모임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재봉기 또는 바느질을 이용한 의류 및 생활 용품
수선하기

손바느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소품 만들기

간단한 매듭을 이용한 악세서리 만들기

손 글씨와 꽃을 이용한 선물 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이용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이용요금

작품에 따라 변동됨 / 강의시 강사 수당 1시간 35,000원

개방시간

월, 수요일(오전)/ 화, 목, 금, 토 (오전, 오후)

핸드메이드미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82 | 010. 9640. 9005

기관소개

예쁜 손과 아름다운 손으로 만드는 공예, 만드는 과정이 아름답고 완성작이 더 예쁜 핸드메이드미입니다. 생활에서 필요한 공예품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보세요. 청소년들의 관심있는 취미활동이나 진로 탐색활동 체험도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가족공예, 압화공예, LED플라워공예

아로마향초, 디퓨저



이용 / 신청 방법

전화문의

개방시간

월~토(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외부수업시 문의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도서관

도서관 이야기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동 작은도서관

남원시 금하정1길 8-6 금동아파트 내 | 070. 8194. 8956 | <https://band.us/@geumdong79>

기관소개

금동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는 금동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밴드를 통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접수 또한 밴드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청소년 프로그램

종이팬이 & 팔찌 만들기 및 팬이대회 진행

떡볶이 만들기 - 절편만들기 - 케익만들기

원목 구급함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준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인기가 좋았던

요리수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으며 여

름방학 기간에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읽고 한

줄 소감을 말해주는 친구들에게 소소한 만들기 체

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 / 신청 방법

네이버밴드 '금동작은도서관'을 검색 가입하시면

금동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나 소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도 밴드를 통해

서만 확인/접수 가능

공유자원

금동 작은도서관 내 영유아 열람실은 도서관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며 1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 부탁

개방시간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가능)

기타사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출

-책은 읽지 않고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 독

터디 목적이 아닌 다 른 목적의 방문시

-이성간의 진한 스킨십 | 다른이용자에게 불쾌

는 민폐를 끼치는 경우 등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퇴출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라북도 남원시 역재3길 | 063. 620. 5290-5293 | 남원시청 홈페이지 서브메뉴

기관소개

도서관 1층(놀이마당)은 유아를 위한 공간으로 유아자료실과 이야기 공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장난감 대여실, 수유실, 장난감소독실 등이 있습니다. 2층(기쁨마당)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자료실과 상상서가(드림꽃이), 일반 및 부모를 위한 일반자료실, 휴게공간 등이 있습니다. 3층(탐구마당, 나눔마당)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자료실, 강의실, 동아리실, 감성정원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취미생활과 탐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단순히 책 보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학습과 체험, 놀이, 여가활동이 가능한 멀티공간으로써 창의적인 사고와 전인발달을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북스타트 사업 실시

- 아동에게 책꾸러미 배포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 (서양과 한국의 신화)
- 도서 및 장난감 대출 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현장에서 문의



이용 / 신청 방법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문하여 도서검색대 또는 안내데스크 이용

이용요금

장난감 대출시 연회비 10,000원
(현금지참)

개방시간

화요일~일요일(10:00 ~ 19:00)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화요일~토요일 (10:00~22:00)
단, 일요일은 19:00까지 운영

독우물 작은도서관

남원시 금지면 독우물길 33 | 010. 2428. 2531

기관소개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책과 함께 어르신들께는 작은 어려움이라도 도움의 손길로 어린아이들에게 돌봄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열려있는 마음의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운영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책 읽고 만들기 수업

독서수업 (도서관친구 책친구) 초등반, 중등반

로봇과학 수업

한글수업이 운영됨

이용 / 신청 방법

동네친구들에서 금지면 모든 친구들까지 운영 되었음

남원시민 누구나: 시립을 중점으로 공립작은 도서관은 시스템통합 운영 되고있음 (독서회원증 발급 (시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주민 등록증 및 가족 증명서 지참)

금지면 이용자 우선순위 (남원시민 참여가능)



개방시간

09:30~18:30 (매주월요일 정기휴관)

기타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수업 보류 중
독서수업(초등 월2회)만들기 수업
월 1회만 운영 중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메카센트럴 작은도서관

남원시 요천로 1300 | 063. 635. 6634 | 밴드(메카센트럴작은도서관)

기관소개

메카센트럴 작은도서관은 남원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단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공간이 아닌, 즐거운 독서의 놀이터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휴식공간이면서 지역주민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교류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유아부터 성인반 가족공예

유아부터 초등학생 보드게임

유아부터 초등학생 책놀이

유아부터 초등학생 요리수업

이용/신청 방법

남원시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시립도서관에서 대출증을 발급받아 5권까지 대출가능합니다.



개방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모모에게 말걸기 작은도서관

남원시 용성로 207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010. 2616. 3127

기관소개

어린이, 청소년, 시민, 가족들의 독서 및 공동체 활동을 돕고 마을 안에서 소통하며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는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시민독서

그림책 연구 동아리

상주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창작교실

도서 대출

방과 후 마을학교

(스피치, 토론, 글쓰기, 책놀이, 공예)

토요꿈다락 문화예술교육 '책과 행복이야기'

청소년 자원봉사

이용/신청 방법

무료



공유자원

독서방, 회의방, 강의실 등 공간 공유



개방시간

월~금 오전 12시~오후9시

토요일, 평일 오전은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율 운영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남원시 관서당길 35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1층 | 063. 626. 3313 | namwon3312.or.kr

기관소개

2010년 4월 14일 개관한 작은도서관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누리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육, 복지, 문화의 공간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엄마가 읽는 그림책 (2017~)

성인 대상 그림책 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이론 교육, 유럽, 미국 그림책 작가 작품 교육

손으로 하는 마음공부 (202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그림책 필사 프로그램.

언니가 읽어 주는 그림책 (2017~)

청소년이 운영하는 봉사 프로그램, 어린이집 방문 그림책 읽어 주기, 교사 보조 활동 진행.

교과서 문학작품 통으로 읽기 (2020~)

교과서 문학작품 함께 읽기 프로그램

신나는 책놀이(2019~)

아동 대상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이용/신청 방법

도서대출 :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관 도서관 통합회원 가입 후 도서 대출 가능

- 1회 5권 10일 대출(연장가능)

- 희망 구비 구비 도서 신청 가능

공유자원

그림책 600여권 이상 보유

(고전 그림책, 칼데콧 상, 그린어웨이 상 작품)

개방시간

화요일~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새싹 작은도서관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64 | 070. 4246. 2308 | https://cafe.naver.com/nwsslib

기관소개

2013. 4. 4. 개관, 영.유아, 초등, 청소년 및 마을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다양한 간접 경험으로 즐겁게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미래 마을 중심의 독서문화예술공동체를 지향하는 새싹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작은도서관 시상)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전라북도 독서문화지원 사업 진행

영.유아 '도서관 선생님 책읽어 주세요' 진행 (2014년~현재)

초등 대상 책친구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2014년~ 현재)

작가 강연: 1독 1행 유근용 작가, 토종씨앗 변현단 작가

성인문화교양강좌 진행 (2014년~ 현재)

한지공예, 바리스타, 가죽공예, 천연생활제품, 재봉틀이용 DIY 작품 만들기

작가 도전 그림 배우기

결혼이민자 한국어, 한국전통문화 배우기

전라북도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진행 (2018~ 현재)

이용/신청 방법

도서 대출: 신분증, 청소년증 제시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1인 대출자료 5권, 10일 대여, 1회에 한하여

5일 연장 가능

- 희망 도서 구비 신청 가능

이용요금

무료 (전 세대 무료 이용)

개방시간

월~금요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휴관일: 임시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송동 작은도서관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38 | 063. 636. 6497 | 밴드운영(방문신청)

기관소개

2013년 3월 26일 개관한 작은도서관으로 송동복지회관 안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송동면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문화 프로그램 운영(만들기, 먹거리 등)	직장인을 위한 평일 밤에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영화 프로그램	체육시설
독서 동아리 운영	청소년 봉사 활동(책정리, 도서분류, 파손도서관리)

이용/신청 방법

방문/전화 이용문의 및 신청 방법 안내

- 회원가입 (남원시립도서관 또는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회원 가입 후 도서대출 가능)
- 도서대출: 1인 5권 - 대출기간: 10일(1회 한해 5일 연장 가능) - 희망도서 신청 가능



공유자원

체육시설, 실내 탁구장, 실외 족구장, 테니스장



개방시간

화~토 9시부터 6시까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동가능)

오들 작은도서관

남원시 도통동 오들1길26, 부영5차 관리동3층 | 070. 4964. 5393

기관소개

2015년 1월 6일에 개관한 남원시의 11번째 작은 도서관으로, 남원시 도통동 부영5차 관리동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5차에 거주하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독서를 통한 다양한 간접경험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운영 프로그램 중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줄 독서록 쓰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해 보거나 책속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적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신청 방법

네이버 밴드 '오들작은도서관'을 검색 가입하시면 오들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나 소식확인



이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월요일~금요일(9시~6시, 12시~1시 점심시간)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이그린 작은도서관

남원시 황죽로11 이그린아파트내 | 063. 635. 6104

기관소개

2013년 1월에 개관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이그린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청소년 도서를 접하고 자원봉사 기관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자원봉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독서문화프로그램
다양한 인문학 수업
취미교실



이용 / 신청 방법

도서대출: 남원시립도서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1인 대출도서 10권 10일 대여 1회에 한하여 5일 연장가능

-희망시 구도서 신청가능

-도서관프로그램은 방문신청 및 이그린도서관 밴드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공유자원

이그린작은도서관의 열람실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용가능하지만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의 이용은 어렵습니다.

개방시간

화~토요일(10:00~18:00)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좋은열매 도서관

남원시 비석길 66-16 | 063. 634. 2525 | band.us/@gfl

기관소개

문화가 있고 배움이 있고 소통이 있는 따뜻한 공간, 지역의 사랑방 좋은열매도서관은 2016년 11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취미생활과 함께 개인의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열려있는 도서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창의광판 독서미술, 창의미술, 멋글씨 디자인, 교구활용수학, 신나는 창의퍼즐, 오감만족 요리노리, 행복한 칼림바, 캘리그래피 디자인 전문가 과정, 창의사고력 지도사 등



이용 / 신청 방법

밴드 접수, 전화 접수, 직접 방문 접수

이용요금

장소제공은 무료, 프로그램 참여는 프로그램별 별도

공유자원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개방시간

화~토(10:00-18:00)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주천면 작은도서관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 010. 684. 0782
http://www.smalllibrary.org/library/detail/1501824

기관소개

주천면 작은도서관은 3,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올해는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열람의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곳이 청소년들의 미래에 꿈이 되고,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마을 공동체의 거점,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도서 대출, 열람	독서, 공예 등 동아리 운영 가능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	도서관 축제 운영 가능
도서 정리 및 도서관 환경정리	(책갈피 만들기, 크리스마스 엽서 만들기 등)
자원 활동가 모집과 교육 운영 예정	두목회(독서동아리) 월 1회 모임
-도서 대출반납 자원 활동(정기 자원 활동)	주천면 마을기자단(마을소식지 발간 예정) 월 2회 모임
-재능기부 및 행사 지원(비정기 자원 활동)	

이용 / 신청 방법

도서 대출 회원 가입(방문) - 남원시 주천면, 이백면 주민 누구나 가능
청소년 자원봉사자 - 남원 시내 청소년 가능(1365 이용)
기타 이용/신청 -전화나 방문 예약 가능

개방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30
토, 일, 공휴일 휴관
화요일: 출장 및 교육으로 휴관
토요일 봉사가 있는 경우 개방(09:00-12:00)



품안작은도서관

남원시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산내면사무소옆건물 2층) | 063. 620. 4718 | 밴드운영

기관소개

산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시간이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오후시간에 열고 저녁 늦게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운영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최대한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구성을 각 분야에 계신 분들로 모집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며 학생위원도 함께해서 학생들의 생각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2019년도 기준	2020년
저자와의 만남 “남원성”작가	자연놀이터 ‘그래’모임에서 도서기획전
저자와의 만남 “들키고 싶은 비밀 여우책방” 운영	‘피어나’도서기획전
진들의 이야기	초등학교 4-5학년 대상 ‘마음공부’(명상)
성인대상 “페미니즘” 특강(전국도시에서 특강신청)	초등학교 3학년대상 도서관에서 놀자 (도서관소개,책속 주인공 만들기,경제교육)
청소년 철학수업(중학생 대상)	‘밤나무 놀이터 뜨개단’ 학생,학부모가 뜨개질 참여
초등대상 여름방학 캠프(동네 청년들과 함께)	로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웃입혀주기 시행

이용 / 신청 방법

밴드나 개별문자

개방시간

화~토 화~금(오후 12시부터 저녁9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혼불 작은도서관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1길 9-2 | 063. 634. 9003

기관소개

사매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추천도서와 우수도서 선정을 통해 양질의 도서구입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사매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운영
다문화여성과 자녀를 위한 한글학당
다문화가정가족과 함께 엄마의 나라 언어 배우기

이용 / 신청 방법

남원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회원가입신청후 대출가능.
도서대출 1인 5권, 10일(1회에 한해서 5일 연장 가능)
사매면 지역주민 및 남원시민, 남원소재 직장인 및 학생

공유자원

도서열람실, 독서실

개방시간

화~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황죽 작은도서관

남원시 황죽천변길6 | 010. 7355. 6364

기관소개

작은 동네에 있는 도서관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 어린이집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들과도 함께하여 여러 어린이들에게 책을 소개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목공예,가죽공예
종이접기
텀블러 만들기 등

이용 / 신청 방법

학교나 유치원에 공문을 통해 접수를 받기도 하며 도서관 내에 프로그램 일정을 비치하여 이용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근무시간(오전9:00~18:00)
휴무-화요일, 일요일, 공휴일



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남원시 가방뜰길 57. 휴먼시아관리사무소 1층 | 063. 633. 1553
<https://band.us//n/aea627RcZaR9g>

기관소개

휴먼시아작은도서관은 약 1,000세대에 이르는 휴먼시아아파트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자들이 쉽게 방문하여 편안하게 책을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 사회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하는 열린도서관입니다. 10,000여 권의 도서가 구비 되어 있어서, 지식 함양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특성상 초등학생이 많아 주로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겨울방학, 여름방학 특집 LH 후원 프로그램

책놀이(매달)

정기적인 휴맘 독서동아리 모임

노란앞치마를 입고 책읽어주세요

공예

(가족돼지캐릭터열쇠고리, 미니어처 가든카페, 룸 스프레이, 감사카네이션, 압화가죽공예, 썸머비치 백, 가족미니가방, 글리터매직거울, 플라워캔들, LED크리스마스블록, 자초립밤, 커피스크럽)

이용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시거나 밴드를 통해 도서 구입 신청이나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은 시립에서 만든 대출증을 가지고 오셔야 대출이 가능

개방시간

화~토 오전9시~오후6시

휴관: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사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출합니다.

-책은 읽지 않고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 독서, 스터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방문시

-이성간의 진한 스킨쉽

마 을 에 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 일

발행처

춘향골교육공동체

발행일

2020년 11월 16일

기획 및 정리

춘향골교육공동체

디자인

양 규완

주 소

남원시 동충로 39번지 2층